

그러므로 사회는 최소한의 생리작용까지 소비해버렸다! 그것이 소화흡수(삼킴, 소화, 배설 혹은 구토) 과정의 중심에 포위되고, 거기서 피부와 내장의 반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스테판은 존재들(인간 혹은 동물)를 상기시킬 때, 언어로 손상된 머리보다는 신체기관-관객을 떠올리는 «사지에 붙어있는 장기들»을 자주 언급한다. 단순한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육화하기, 놀람과 구역질의 의성어/의태어들이 지배하는 순간에 관념의 배를 찌기, 위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고통이나 웃음으로 몸을 비트는 것 관찰하기, 당신이 누구든 이런것들을 무사히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테리, 공포증, 심장병, 심기증, 몽유병, 아니면 단순히 멍한 상태로든 당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심인성 신체질환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이므로. 놀이와 위험, 도덕은 어느 누구도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이런 활동들을 비난할 것이다 =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지 마시라, 퍼포먼스의 핵심을 놓칠것이니.

(...)

손들어 하고 말할 때 스테판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수줍게 웃고 모든 금지들을 상기시키는 침묵을 준비하게 한다. 소비자들이 허영심을 갖고 동일시하는 영화적 거울 이외에 누가 감히 근본적인 답답함을 말할수 있겠는가? 그는 일상과 테자부의 항구에 정박한 타부를 불쾌함 없이 산산조각내 버렸다. 한편 그는 서울의 한 단체전에서 긴 사다리 옆에 누워 스스로를 전시하기위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었다. 미동도 없이.. 얼굴에 얼룩진 피, "Banana skin" 기질, 경악, 혹은 눈물.. 미술관 관리자들이 놀라 소리칠때 까지... 신이여, 다행이도 그는 그의 욕봉을 꺼내지는 않았다. 그의 «조깅»은 생샤를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그의 성기로 몸의 색으로 미키마우스를 그릴때 처럼 더이상 «해폭발적»이지 않았다. 창조하기는 발기시키기이다. 관객에게 실험용 생쥐 몇마리를 풀어놓기 전까지. 창조하기, 그것은 노는것이다. 그는 경계의 감각을 지녔다!

«내 엉덩이를 걷어차라», «네 뺨을 한대 때릴테다», «집행하는 집시», 혹은 «멍청한 검둥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를 불러라), 스테판 드 메테이로스의 퍼포먼스는 그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기 위해 기획된다. 몸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같은 제목의 책의 저자인 콩골래 쏘니 라부 탄시에 대한 명백한 찬사인 «아래 서명한 나는 심장병환자다»는 스탠리 밀그람을 스스로 한 재미들린 행위자/관객들의 고백되지 않은 공격성(그 한계는 어디인가?)에 불을 지폈다. 휘잇! 하고 헛과람을 볼때마다 이 예술가는 따귀 한 대를 맞았다. 뺨을 때리는 것은 개념적이지도 형이상학적이지도 않았다. 따귀 한대는 하나의 고통을, 그를 때리는 사람들 만큼이나 그가 확실히 의심했던 순간을... 우리는 테런스 힐과 버드 스펜서의 마지막 영화 이래로 그렇게 웃어본적이 없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가 될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S 를 주세요... T 를 주세요... E 를 주세요... P 를 주세요...» 치어걸들이 그렇게 머리가 깨지도록 소리칠때, 그는 벌거벗은 채 오토바이 헬멧만을 뒤집어 쓰고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뜨렸다. 첫번째 퍼포먼스, 첫번째 미학적 정체성의 순간, 첫번째 물음들.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스테판의 이야기들은 꼬리도 머리도, 시작도 끝도 없다. «더 지적일 수록 더 바보이다», 그는 주시하는 대상들의 부조리를 의미하기 위해 폼브로워쥬의 이 말을 자주 차용한다.

여성들이여, 발기되지 않으면 별볼일 없을 것이다.

남성들이여, 젖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야할 시간이다.